



대학원생, 그 이중적 위상에 관하여

근대적 의미의 이공계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은 일제강점기 시절 문리과대학, 공과대학, 광업전문대학 등이 설립되어 기술 전문가와 기술 관료를 양성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60년대 종합대학이 등장하며 문리대에서 이과대학이 분리되고 공과대학이 늘어나며 산업 일꾼의 양성이 본격화된다. 1970년대에는 해외에서 유치된 과학자들이 교수로 자리 잡으며 이공계 교육의 틀이 마련되었고, KAIST가 설립되는 등 본격적인 이공계 분야의 고등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다. 1980년대에는 대학에 국가연구개발자금이 지원되며, 이공계 대학원에서의 연구가 시작되고 국내에서의 박사 배출이 본격화되며, 이후 이공계 대학의 인력 배출 규모와 연구 성과 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연구실 내에서 배움과 노동의 차이 뚜렷하지 않아

이공계의 대학원생은 학문을 배우는 학생임과 동시에 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배우는 것과 일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겠지만, 연구실 내에서의 배움과 노동의 차이는 생각만큼 뚜렷하지 않다. 취업 후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에서도 끊임없이 최신 학문을 익힌다는 점과 대학원 과정 동안 국가연구개발과제와 산업체 과제 등을 수행하고 과제에서 학생 인건비를 받으며 과제의 성과를 낸다.

이공계 대학원생은 당연히 학생이지만, 단지 학생으로만 치부하기에는 모호한, 이중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물론 대학원생은 아직 연구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

하여 여전히 배워야 할 지식이 많으며, 배움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교육 서비스를 받는 학생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교육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며, 이 연구가 사회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학문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 학생들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직업으로서의 연구원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물론 이것은 대학에서 이루어진 '교육을 위한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다시 말해 하는 일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은 별로 없다.

과학기술이란 평생을 연구해도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남은 길이 까마득하다. 한 사람의 인생으로 모자라서 세대에 걸친 정진을 요구하는 것이 학문의 길이라면, 학생이 하는 연구와 연구원이 하는 연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여기에서 이공계 학생들의 이중적 위상이 시작된다. 그들은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동시에 연구원이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연구소의 연구원도 연구원인 동시에 과학기술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경직된 연구문화와 부당한 처우 여전히 존재

이공계 대학원생은 인문사회계열 대학원생과도 다소 차이가 있다. 우선 인문사회 계열에 비하여 대학원생 수가 많으며, 교수 1인당 지도 학생 수도 많다. 대체로 1대1의 논문지도보다는 연구실 단위의 지도 체계이며, 연구실 내에서는 연차에 따른 질서나 역할 구분 등이 존재한다. 간혹 연구실을 중심으로 벤처기업이 운영되어, 연구실과 벤처기업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도 있다. 연구실을 이끄는 대표 학생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연구실을



글_정우성 | POSTECH 산업경영공학과/물리학과 교수 wsjung@postech.ac.kr

KAIST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을 지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운영하는 주요 재원은 외부에서 수주한 연구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실험 등의 연구 활동은 지도교수가 책임을 지고 진행하지만, 생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산활동 수준의 실험은 대부분 대학원생의 손을 거친다. 현실적으로 대학원생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시도하고, 연구과제에서 받는 인건비에 추가하여 부업 활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경우가 많다.

예전보다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상당히 불합리하며 경직된 연구실 문화가 우리나라의 대학교 일부에 여전히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대학원생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넘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학생의 인건비를 전용하여 교수가 유용하였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는 경우가 있다. 이외에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여 관련 업체와 연구비를 나누기도 한다. 과제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부당한 이유로 학위 수여가 연기되거나 학위를 미끼로 부당한 요구를 받는 사례도 보고된다. 교수와 관련 있는 업체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노동을 제공하거나, 연구과제 및 학업과 관련 없는 행사나 잡무에 과하게 동원되기도 한다. 이외에도 폭언이나 성폭력, 과도한 밤샘 근무 등의 문화가 있는 연구실도 있다.

물론 법률적으로 대학원생이 노동자인지의 여부는 짚어봐야 할 것이 많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대학원생의 처우가 부족하여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자의 법적 지위 인정과 대학원생의 위상과 처우 개선



은 별개의 문제로 접근하여, 법적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그간 대학교가 이와 관련하여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는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 많다. 대학원생 지원과 관련하여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연구비 지원 및 관리 정책과 더불어 대학 당국이 적정한 부담을 함께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대학이 무임승차자적인 관점으로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는 아주 강력한 시각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과학기술계부터 대학원생에게 합당한 대우 해야

우리의 정서상 특히 사제시간이라는 관계는 어려울 수밖에 없고, 연구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안줏거리 이상의 이야기는 내부 고발이나 다름 바 없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논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한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와 인식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해외 사례를 모방할 수도 없고, 쉽게 답안을 작성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지금도 대학원생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을 막는 제도적인 걸림돌은 별로 없다. 따라서 학생들을 연구개발 중추를 떠맡는 하나의 축으로 생각하고 연구실을 꾸리는 동반자로 인식하며 이에 적합한 대우를 해 주는 문제는 문화와 인식의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과학기술계는 과학기술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에 비해 경제적인 처우뿐 아니라 사회적인 대우가 크게 부족하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다. 과학기술인들이 사회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만큼, 창출하고 있는 부가가치만큼이라도 대우해 달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학원생과 일부 비정규직 연구원이 있고, 이를 과학기술계가 외면한다면 어떻게 사회를 향해 과학기술을 대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과학기술과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대학원생의 이중적 위상을 이해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ST**